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17. 유발어(誘發語)를 사용하라

김완일 목사 / 1994/ 페이지수: 2

언어란 능숙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힘이 있다. 가령 혼잡한 곳에서 『불이야!』 하고 외치면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마치 건물에 불이 붙은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잘 선택된 말은 실제 사건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 힘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생기없이 지나가는 말투로 『저, 그런데 말이야, 말해줄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불이 났어』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불이야!』 하고 외치는데 킬킬 웃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언어 구사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보자. 『나는 말이야 네가 이 건물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해! 내가 직접 불을 보거나 연기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몰라도 누가 나에게 알려줬으니 틀림없이 맞을 거야.』 이런 자충수를 두는 말은 전달하는 메시지에 혼선을 빚게 만든다.

이처럼 유발어(誘發語)는 내용과 맥락과 태도가 성경공부 참석자들에게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발어는 감각 호소어이며 감동을 겨냥한 언어이다. 언어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유발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을 골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말이 유발적이고 어떤 말이 유발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원하는 성경공부 인도자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말을 고르는 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들이 때, 장소, 인물 및 맥락 속에서 사용될 때 민감해야 한다.

특히 말에는 그 자체가 유발적인 경향이 있는 말(본질적으로 감각지향적인 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일이 중요하다. 회화적인 말(푸른, 빛나는), 의성어(웅웅거리다, 문이 광하고 닫히다), 감촉어(따끔따끔한, 부드러운), 후각어(악취가 나는, 좋은 향내음) 및 맛봉우리를 자극하는 말(시큼한, 소금물)이 이에 해당한다.

종종 완전한 효과를 노리고 이런 말들은 다른 말과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백미러에 내비친 번쩍이는 경찰차의 빨간등을 볼 때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 『기부스한 봉대를 자르면서 톱이 웅웅거릴 때』, 『광하고 문이 닫히면서 으깨진 손가락』, 『썩은 버터처럼 악취가 코를 찌르는 동물시체』, 『장미꽃 향기 그윽한 밤공기』 등 이런 표현들은 복잡한 맥락이 없는데도 간단한 문구들로 열거된 말에 의해 감정은 분명하게 되고 많은 감정들이 유

발된다.

성경공부에서 유발어의 사용목적은 메시지의 완전한 실체를 경험하여 참석자가 메시지속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다. 유발어는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